[UCI]I804:24011-200000236153

2008년 2월
교육학석사(미술교육)학위논문

아동미술교육에 있어서 창의적인 표현을 위한 재료활용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 술 교 육 전 공

최 금 정

아동미술교육에 있어서 창의적인 표현을 위한 재료활용에 관한 연구

Study on using material for creative expressions in art education for children

2008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 술 교 육 전 공

최 금 정

아동미술교육에 있어서 창의적인 표현을 위한 재료활용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진 원 장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미술교육)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7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 술 교 육 학 과

최 금 정

최금정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07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표목차

ABSTRACT

Ⅰ.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4

Ⅱ. 미술교육과 창의성 ····· 5

1. 이론적 배경 ····· 5
2. 아동미술의 창의성 교육 ····· 12

Ⅲ. 창의적 표현을 위한 재료의 확대와 활용 ····· 20

1. 아동미술 표현에서 재료의 의미와 선택 ····· 20
2. 미술재료의 확대 ····· 23
3. 표현재료의 가능성 ····· 27

Ⅳ.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표현 방법의 적용 ····· 32

1. 작품에 나타난 다양한 표현기법 ····· 32
2. 효과적인 재료활용을 위한 지도방안 ····· 34
3. 다양한 표현재료와 기법활용의 실제 ····· 37

Ⅴ. 결론 ····· 54

참고문헌 ····· 57

표 목 차

<표 1> 평면재료의 조사와 분류 ····· 23
<표 2> 입체재료의 조사와 분류 ····· 24
<표 3> 채색재료의 특징 구조 ····· 26
<표 4> 표현재료의 가능성과 기법 ····· 28
<표 5> 미술의 다양한 표현기법 ····· 32

ABSTRACT

Study on using material for creative expressions in art education

Choy, Keum jeong
Advisr: Prof. Jin, Won Jang Ph.D
Major in Fine Art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For children, art education is not just learning simple techniques or saving up knowledge but it is building an aesthetic feeling and cultivating an artistic character and talent along with creativity. Because a child thinks freely and actively and shows curiosity in various aspects, art education at this age has an effective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the child's creativity. The current Art education for children, which gives priority to simple techniques of self-expression, is not capable of improving the child's creativity or developing their desire for self-expression, which proves that Art classes using variety of materials are required.

Therefore, this research is designed to try to develop a concrete and effective Art education, which can make the children look at the surrounding world from a new angle of view, develop creativity in a more entertaining and free environment by experiencing art activities to discover the materials'

capability by using diverse materials from the surrounding world and to invite interest towards Art; and to revive the original meaning of Art as apleasant and initiative activity.

By theoretical investigation this research inquires into the meaning of creativity in Art education, its importance in art activities, and search for possibilities of expression which go along with surrounding materials and measures to use the techniques following it.

Moreover, by mixing different materials the research managed to expand the ability in composing pictures and abundant peculiarities of formative arts. As stated above, by putting into practice a new method of expression in Art, using surrounding materials, we managed to obtain unexpected picture effects, and by peculiarities of materials we also achieved creative and original expressions.

Based on the following research this investigator thinks tha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view over art materials, which had been used meaninglessly in the process of art education before, and to hold active experiments to develop creativity in art expression, through an integrated map, which uses the surrounding materials and hopes that steadily investigating new and more creative materials it will be possible to realize the creative course in art education, which can enlarge the range of unlimited possibilities and expressions, by actually applying it in classes for children.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아동의 미술활동은 정신적, 육체적인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기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어린이가 표현하고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활동은 자신의 주변 환경에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한데모아 조화시키는 새롭고 의미 있는 표현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주변 환경 요소들을 선택하고 이해하여 재구성 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들 자신의 표현을 통해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

따라서 미술교육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인간의 내면세계를 시각적, 공간적, 조형적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교육인 것이다.

현대 미술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아동의 미술교육 또한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현대 미술교육은 잘 그려야 하는 기술적인 것 보다는 조형적인 활동으로 전환되고 이론적으로도 창의성 중심 교육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따라 교육현장에서도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종래의 기능중심 교육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재료와 표현방법이 한정되어 정형화된 미술교육으로 아동의 창의적인 표현을 충분히 이끌어 내는 데 는 미흡한 현실이다.

아동미술교육의 목적은 그림을 잘 그리게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표현과정에서 즐거움과 흥미를 가지게 되어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고 감정을 풍부하게 하여 내면의 감성적인 본능을 일깨우는데 있다. 따라서 아동미술교육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창의적인 표현과 미적 감성의 영역을 확대시켜 주어야 한다.

이러한 표현활동을 통한 미술교육의 최종 목표는 누구의 것도 아닌 자기만의 자유

롭고, 새롭고, 독창적인 표현을 통한 창의성 계발과 조형요소를 구성하여 형태화 하는 의식(머리)과 감정(마음)과 기능(손)을 통한 조형성을 발달시킴으로서 미적 감동과 기쁨을 느끼는 행복감으로 이어지는 길로 어린이를 안내하는 것이다. [1] 아동의 시기는 객관적인 사고가 싹트고 호기심과 활동이 활발한 시기로 미술 교육에서 재료와 도구를 사용하여 자신의 느낌, 욕구, 생각 상상력 등을 표현하는 자극과 경험이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즉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표현은 자기표현과 자기완성을 통해 창의력을 계발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 들을 살펴볼 때 미술활동에서의 창의적인 표현이 강조되면서 이에 따른 다양한 표현기법과 체계적인 재료활용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아동의 미술 표현의 특징은 선과 형에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상징적으로 나타나므로 시각과 촉각을 균형 있게 키우기 위해서는 보는 것과 만져지는 것에 대한 경험이 중요하다. 그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독창성과 개성이 자유롭게 드러날 수 있는 표현기법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다양한 재료의 활용을 직접 체험하면서 미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하며 표현활동을 통하며 창의력과 감수성을 키워 주어야 한다. 다양한 재료의 활용은 경험을 통해 물질에 대한 이해와 개념을 인식하면서 흥미롭고 재미있는 활동으로 새로움을 느끼고 그 새로움을 창의적으로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으므로 미술교육을 위하여 창의적 소재와 다양한 활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술교육의 관점으로 볼 때 창의적인 표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재료의 의미와 표현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이 다양한 미술재료의 체험을 함으로써 효과적인 표현방법을 발견하여 재료를 통한 아

1) 김춘일. (1985). 아동미술론. 미진사. p. 35-38.

동의 개성에 맞는 표현방법에 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게 한다. 또한 재료에 대한 좀 더 개방적인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여 보다 폭넓은 미술 경험을 쌓고 자신의 작품에 대한 표현 수단으로서 재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하며, 미술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킴으로써 창의적인 미술교육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재료 활용은 아동에게 생활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의 확대와 특성을 이용한 표현방법을 제시하여 활용하게 하게 한다. 또한 일반적인 미술재료의 표현기법을 달리 해보는 방법과 새로운 재료의 경험을 통해 흥미롭고 재미있는 활동으로 새로움을 느끼고, 그 새로움을 창의적으로 나타내고 표현 할 수 있도록 하는 미술교육을 위하여 창의적 소재와 다양한 재료활용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표현을 위한 지도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아동의 창의적인 표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미술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며 창의성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아동의 창의성을 향상시켜 주는 미술교육을 위한 재료활용의 지도 내용과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고찰해 보기 위하여 미술교육과 교육학의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 이론에 근거하여 아동의 창의적인 표현을 위한 재료의 활용을 위한 다양한 지도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미술교육에 있어서 창의성의 의미와 창의성 미술활동의 중요성을 이론적 배경을 통해 살펴보고 아동미술의 창의성교육을 동기유발과 발상지도,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사의 역할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표현재료의 폭넓은 고찰을 시도하여 아동의 창의적 표현을 위한 재료의 의미와 선택, 표현재료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제4장 에서는 창의적 표현과 재료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재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위한 지도방안을 모색하였다.

Ⅱ. 미술교육과 창의성

1. 이론적 배경

1) 미술교육의 의의 및 가치

날로 다양해지는 현대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함께 다양해짐에 따라 교육체제 에서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인간성 회복이 절실해 지고 이를 위해 정서 함양과 창의성 개발이 절실해진 것이 사실이다.

현대 미술교육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미술교육도 변화에 발맞춰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데 의미를 두어야 하는 것이다.

인간에 있어서 창조성은 개개인의 기질이나 성품에 따라서 다른 타입으로 나타나며 미술의 경우 하나의 독창성을 부여해 준다. 미술은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변화 시켜줄 뿐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게 해 준다. 미술에 있어 창조는 상상의 기능이며 시대나 개인에 따라 가변성을 지닌 주관적인 것이다[2)]

개인의 자유로운 상상력 활동에 근간을 둔 미술교육은 아동의 사고를 자유롭게 하고 자신감을 준다. 아동들은 각자의 감성에 바탕을 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과제를 해결하면서 이를 통해 확산적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아동이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데 크게 기여 한다. 이처럼 진정한 미술교육은 아동의 창의적인 사고를 개발하는데 본질적인 가치가 있으며, 아동들의 교육에 있어서 미술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

---

2) O. W. Gotshalk, Art and socil, N.Y: Dover Publishing Mc-Grow-Hill Book Co. 1962, p. 34.

미술교육의 의의와 가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

• 미술교육을 미술의 교육으로 보는 즉 미술과 같은 아름다운 예술작품 및 미적 대상과 접하게 함으로써 아동의 정서를 점점 순화된 상태로 이끌어가며, 창조적이고 경험을 많이 시킴으로써 아동들로 하여금 독창성, 유창성, 유연성, 구체성 등의 창의적인 사고를 발달시킨다.

• 미술교육은 아동들에게 그들 자신과 그들의 세계에 대해 표현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아동들이 새로운 것을 완전히 알게 되기까지 표현과 의사소통은 학습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미술은 자기표현과 의사소통의 수단을 제공한다.

• 미술은 감정의 배출구가 되기 때문에 긴장해소와 어려움의 해결 방안으로 예술표현을 사용하는 습관이 아동기에 이루어진다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성격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 아동들은 그림을 그리면서 배열하고, 풀칠하고, 채색하고 형태를 만들 때 크기, 질감, 무늬 등과 같은 것을 결정해야 하므로 미술에서 그것들과 마주치고 해결함으로써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의 기회를 제공한다. 미술활동은 아동의 독특함과 타고난 가치가 특별히 인정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아동의 자기 가치 구축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미술은 자아개념과 자신감을 강화시킨다.

아동들은 미술활동을 하면서 자신만의 사고와 상상의 결과를 가지고 주어진 과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기 신뢰와 신념을 키우며 자기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자기가 하는 미술품이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되며 남과 경쟁해야 하는 부담감이 없을 때 아동의 자신감이 강화된다. 아동들의 미술 활동은 신체적 발달 및 정신적 발달을 도모하는 동시에 정신적 긴장을 해소시키는 자연 발

---

3) P. D. Jenkins, Art for the Fun of It a Guide for Teaching Young Children, New Zealand: Prentice-Hall, Inc, 1980, pp. 17-18.

생적인 학습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의 마음속에 갇혀 있는 욕망, 희망, 기쁨과 슬픔, 고독 같은 감정과 일체의 체험을 명확하게 하고 관념을 통일하며,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도 이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림 그리기이므로 아동들은 이러한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보편적인 자기표현 매개체로 상대적인 만족감을 얻기도 한다.

이처럼 아동이 스케치하고, 색칠하며 무엇인가를 만드는 미술활동은 아동의 주변 환경에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한데 어울리게 하여 새롭고 의미 있는 전체로 표현하게 한다.

아동이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다양한 사고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함으로서 아동의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창조력을 육성하고, 나아가서는 이를 통해 원만한 인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미술교육은 아동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표현수단을 함양하는 것이며, 환경을 즐겁게 경험하고, 감각을 사용하는 능력을 발달시킴으로써 개인의 생활을 풍부하게 만들어주어야 한다.

2) 창의성의 개념

창의성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 아직 알려지지 않은 아이디어를 낳게 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그것은 상상력 일 때도 있고 종합적 사고일 때도 있다. 창의성은 정의하기 쉽지 않은 개념 중의 하나이며, 이는 창의성이 개념적으로나 행동적으로 만족스럽게 합의할만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복합적인 능력에 속하기 때문이다.

창의성에 관한 개념파악을 위해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창의성을 지적 능력으로 파악하는 길포드(J.P.Guilford)[4]는 창의성이 지능에 포함된다는 가정 하에 창의성이 포함된 지능을 내용, 산물, 작용의 세 가지특성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는데, 특히 작용의 차원에서 주어진 자료에서 논리적 결론을 추출해 내는 사고의 유형으로 유일한 해답 또는 가장 좋은 결과를 강조하는 수렴적 사고[5]와 주어진 자료에서 논리적 대안을 찾아내는 것으로 다양성, 풍부성 및 적절한 결과를 강조하는 확산적 사고[6]의 요인을 구분하여 파악했다. 또한 창의성을 지적 특성으로 보아 새롭고 신기한 것을 창출시키는 힘이며, 이는 문제감수성 생각융통성 그리고 독창성 등의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주장했다.

인간 성격의 특성으로 파악하는 입장의 머슬로우(Abraham. Maslow)[7]는 창의성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하나는 사회전체에 대하여 크게 새로운 것도 아니고 가치를 더하여 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 개인에게는 새로운 것이며 생활에 도움을 주거나 창조의 기쁨을 주는'자아실현'이라는 개인적 창의성이며, 다른 하나는 그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하여 새롭고 일정한 수준 이상의 질을 가진'특

---

4) 창의력이 무엇인가에 대해 J. P. Guilford는 창의력을 새로운 독특한 아이디어 또는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확산적 사고(divergent thinking)로 설명하였다. 이는 여러 가지 다른 많은 생각이나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 내는 능력으로서 이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수렴적 사고(convergent thinking)가 있다. 확산적 사고는 미리 예측되지 않은 또는 정해져 있지 않은 다양한 해결책이나 답을 모색하는 사고이다. 확산적 사고는 길포드가 지능구조를 설명한 모형에서 제시한 개념이다. 그는 문제에 대한 감수성, 사고의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재구성력, 집착성 등이 확산적 사고에 포함되는 사고능력이며, 이것들은 창의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고 하였다. 길포드가 제시한 확산적 사고의 개념은 창의적 사고의 개념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5) 윤종건,『창의성 교육 그 이론과 실제』, 서울:교육과학사, 1999, p. 65.

6) 윤종건, 위의 책, p. 67.

7) Abraham. Maslow, 1908-1970 에이브리엄 매슬로우는 행태 심리학자였다. 브룩클린에서 태어난 그는 위스콘신 대학에서 수학했으며, 학계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일한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였다. 그는 학자로서 영장류의 사회 생활 방식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콜럼비아 대학 연구원을 거쳐 브룩클린 대학 조교수로 교단에 섰다. 그 뒤 웨스턴 행동 과학 연구소를 거쳐 메사추세츠의 브랜다이스 대학에서 근무했다. 머슬로우는 창의성에 대해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으로 나누어 정의내렸다. 저서『Towards a Psychology of being』(1962)와 『Eupsychian Management』(1967), The father Reaches of Human Nature』(1971) 등이 있다.

수 재능의 창의성'인 사회적 창의성 이라고 보고 창의성을 인간 성격의 특성으로 파악했다.

토랜스(Torrance)[8]는 창의성을 문제 해결능력으로 보았다. 문제해결을 위해 추측, 가설, 검증, 수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전달하려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로웬펠드(Lowenfeld)[9]가 '창의적 정서적 성장'을 통해 소개한 창의성의 구성은 감수성,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재정의 하고 재구성하는 능력, 추상하는 능력, 종합하는 능력, 조직하는 능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정의를 종합하여 볼 때 창의성이란 누구에게나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전문적인 이론이 통하지 않는 유일한 것으로 지적인 능력을 기초로 하여 직면한 문제나 대상을 해결하려는 과정을 통해 자기실현과 함께 사회적 창조를 이루어 나가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독창성 있는 아이디어들 사이의 공통성을 발견하여 기존요소를 새롭게 조정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적 사물을 만들어 낸다든지 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 할 수 있다.

3) 창의적 미술활동의 중요성

현재 학교교육은 대부분 단순하고 실용적인 지식의 습득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

---

8) Torrance : 미국의 심리학자, 창의성 검사의 권위자. 창의적 사고의 기본적인 요인을 제시하여 창의적 능력 측정을 가능케 하였다. 생각을 유도하는 높은 수준의 질문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많은 창의성 연구에서도 아동에게 주어지는 질문 수준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강조하고 있다. TTCT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창의적으로 행동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창의력의 구성요소를 '유창성, 독창성, 융통성, 민감성, 정교성'으로 나누었다.

9) Victor Lowenfeld, (1903~1960) 비인 대학에서 철학, 심리학, 교육사, 미술사 등을 연구하고 맹아학교 교사를 거침. 미국으로 건너가 미술교육학 교수로 활동하면서 미국의 미술교육을 학문적인 수준으로까지 격상시키고 , 세계 미술교육 연구의 중심적 존재로서 많은 공적을 남겼다. 어린이의 창의성과 정신적 성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어린이의 측면에 서서 미술교육을 구체화시켰으며, 저서<미술을 통한 인간형성>은 로웬펠드 연구업적의 집대성으로 높이 평가 받는다.

나 단편적인 지식을 되풀이 하는 능력은 '사회에 기여하고 잘 적응하는 사회구성원'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10] 학교교육은 학생이 스스로 해답을 찾고 발견하는 능력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은 창의적인 미술활동을 통해 구체화 될 수 있다.

창의성 중심의 미술교육은 치젝(Franz. Cizek)[11]이 자유로운 자기표현에 의한 미술교육을 실천한 후 세계적으로 급속히 보급된 미술교육의 흐름이다. 이것은 허버트 리드[12]의 말처럼'미술을 통한 교육'[13]이다

미술을 활용하여 교육에서 목표하고 있는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흐름의 공통점은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파급되어져 있는 미술교육의 지배적인 조류이며,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은 미술을 인간의 조화로운 성장을 돕고 잠재력을 개발시키는 도구로 본다. 이러한 미술교육에서 창의성을 중요한 개념으로 정착시킨 대표적인 사람은 로웬펠드 이다.

미술활동에서 일어나는 창조의 재 과정은 그것이 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교사중심의 과정인 것과는 달리 아동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술교육이야말로

---

10) 로웬펠드・브리테인, 서울교육대학교 미술연구회 역,『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미진사, 1993,p.28

11) 치젝(Franz Cizek, 1865~1946, 오스트리아)
조형교육의 실천을 통한 아동 중심주의의 주요 실천자로서, 자신의 사상의 유효성을 실증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함. 1897년 비인 시내에 사적인 미술교실을 열고 그 성과를 인정받자 1904년에 비인 미술공예학교 내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교실을 개설하고 조형교육에 있어서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실천을 전개. 그는 인화나 모사는 물론 대상물의 사생이나 원근법의 지도도 배제하고 오직 어린이의 자발적인 표현방법의 개척에 기대를 걸었다. 그의 지도 방법은 자유로운 이야기에 의해어린이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표현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었다. 아동은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이 힘은 감소되기 시작한다. 이 창의력 대신 매너리즘(mannerism)이나 자연주의가 등장하며 어른들은 자연을 미술의 표준으로 하며, 아동은 이 과정에서 혼란을 느끼게 된다. 창의 보다는 자연의 묘사를 하기 시작한다고 하여 아동의 그림세계 자체가 창의와 묘사 두 단계로 구분됨을 지적하고 있다.

12) Herbert Read, 1893~1968 창의성 중심의 미술교육을 집대성한 사람으로 리드(Read)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저서「예술을 위한 교육」에서, 교육은 여러 사회 병리 현상을 해결할 수 있고, 특히 예술에 의한 교육은 개개인의 개별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가운데 상호이해를 위한 전달수단을 획득하는 길이라 하였다.

14) 정순목,『예술교육론』, 서울:교육과학사, 1993, p. 128

15) 김정,『유아의 묘화 분석』, 서울: 백암출판사, 1984, p. 356.

창의성을 개발하는데 적합한 교과라고 하였으며, 미술 활동은 창의성 교육을 내용으로서 가르치기보다 학생들이 미술수업 과정에서 실제 창의적 활동에 가담하도록 함으로써 창의적인 활동이 형성되기를 기대하는 접근이며, 미술 활동은 스스로를 드러내 놓는 적극적인 표현활동과 표현과정을 통하여 나타나는 즐거운 자기표현이므로 창의성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미술교육은 안에서 밖으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자발적 창의성 교육이므로,[14]인간의 감성을 통하여 하는 미술교육은 이미지와 감동을 통한 감성적 인식이 수반되는 교육이므로, 음악, 드라마 등의 다양한 예술분야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면서 통합적으로 지도할 때 예술 전반에 관한 폭 넓은 이해를 도와줄 수 있다. 또한 창의적 미술활동은 사회에서 협력하며 살아가는 능력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능력은 아동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책임감을 배우지 못하면 발달할 수 없다. 또한 아동이 그 자신의 경험과 동일화하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사회성발달의 첫 단계는 아동이 자신의 경험과 만나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만남은 아동이 그러한 활동과 동일화하는 창조과정의 본질에 존재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동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욕구를 발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욕구와 동일화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아동은 창의적 활동에 다른 사람들을 포함시키고 다른 사람의 욕구에 밀접하게 자아동일화 함으로써 자신만이 아닌 집단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또래 집단기라고 부르는 중요한 시기에 아동은 집단에서 자신의 사회적인 독자성을 발견하게 된다. 예술은 협동작업 을 통하여 새롭게 발전된 느낌을 체계적으로 의미화 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15]

---

15) Herbert Read, Education Through Art (London : Faber&faber, Ltd., 1943), pp. 274, 275.
을 로웬펠드・브리테인, 서울교육대학교 미술연구회 역,『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미진사, 1993.

2. 아동미술의 창의성 교육

현대의 미술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목적이 미적 안목이나 조형능력, 창의성의 육성 등에 집중되어 있어, 표현기능중심의 미술교육이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이 등장한다.

어릴 때부터 형성된 표현 욕구는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창작물을 발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지식을 습득하더라도 머릿속에서 만 축적하는 것이 아닌 지식을 통해 새로운 발명을 한다든지 실제적인 대상을 만드는데 활용한다. 따라서 창의성 향상을 위해 인지위주의 교육보다는 우선적으로 아는 것을 표현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1)동기유발과 발상지도

교사의 적절한 동기 부여에 따라 적절한 동기유발은 아동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쉽게 도와준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적, 외적인 동기유발 이 필요하다.

교육에서는 동기를 유발하는 기술이 중요하다. 아동들은 높은 동기 유발과 지속성을 갖게 될 때 창의성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동기유발은 창의성의 첫 단계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16]

그림을 그릴 때나 무엇을 만들 때 작품의 결과나 제작과정에서의 동기유발은 아

---

16) 미술교육에 있어서 창의적 동기유발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89, 15P

동들이 관찰에 익숙하게 하여 시각적으로 사고력으로 충분한 이미지 형성이 되었을 때 학습의 효과가 나타난다. 아동들은 여러 가지 대상의 특징과 형태로서 다른 대상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대상의 개념이 형성되어야 한다.

아동이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충분히 토의함으로써 관찰을 통한 경험의 재현으로 표현력은 향상된다. 동기유발은 아동이 그림의 주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며 아동들의 생각 ·지각·느낌을 표현하게 된다.

아동이 발상단계에서 실제 많은 경험이 없을 때는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기 시간보다도 더욱 발상지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재료의 성질을 알거나 여러 가지 용구의 사용 방법도 발상지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이 자신의 감각을 더 인식하도록 자극하고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인식 시킨다 .

창의력 신장을 위한 발상지도의 유형

1) 시행착오 법 : 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 만들고 하면서 생활경험을 쌓아나가게 된다. 또 나이 든 아동이나 어른의 경우에도 처음 대하는 주제 , 재료 , 용구에 접해서는 어떻든 '경험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접근방법이다 .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표현해보는 것이 좋은 방도이다 . 반복에 의한 학습의 요령이, 보다 만족한 만들기 활동의 수준에 다다르게 한다.

2) 연상 법 : 연상은 가장 자연스럽고 단순한 사고이다 . 관련이 있는 것 ,없는 것을 가리지 않고 관련 적으로 생각나는 것 , 생각한 것을 중심으로 구상하고 고안하는 발상이다 . 이 방법에는 아이디어 연합작용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 근접 연합 : 근접하고 있는 것 , 관련 깊은 것을 중심으로 계속 연상 해가는 방법이다 . 예를 들면 발에는 구두 , 신랑에는 신부하는 식의 연상이다 . 또 산에 대

해 강 , 책상 에 대해 의자를 연상한다. 가뭄이 들면 물장수가 '돈벌이'가 된다는 식의생각도 근접 연합이다 .

• 반사 연합 : 반대의 성질을 가진 것을 연상해가는 방법이다 . 예를 들면 더운 여름에 대해 추운 겨울 , 단단한 돌에 대해 부드러운 두부 등이다 .

• 유사 연합 : 이미 있는 대상에서 그것과 닮은 것을 계속 연상해가는 방법이다 . 예를 들면 손바닥→스푼→삽→스푼→동력삽→스키→서핑→윈드서핑 등이다 . 물질의 모양이나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계속 연상해가는 방법이다 . 또 다른 사람의 디자인을 다소 바꿔 변용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데 , 이 경우 디자인의 도용이 될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의 디자인을 그대로 변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 디자인을 참고해서 자기 나름의 독자성을 가진 디자인으로 개량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

3) 도치 법 : 어떤 아이디어나 형태를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해 본다 . 즉 반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지를 생각한다. 예컨대 교사들은 가르치는 입장에 있지만 때로는 배우는 입장이 되어보면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지도상의 결함 등을 찾아 볼 수 있게 된다. 몇 가지 경우를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

전도 : '밀어서 안 되면 끌어보라' , '녹이 슬어 도저히 뺄 수 없는 못도 망치로 한번 두드려보면 의외로 쉽게 빠진다.' 등이다

• 전복 : 도화지에서 가위로 원형을 자를 때 둥글게 잘 잘리지 않는데 , 한번 자른 것을 뒤집어서 하면 불룩해진 부분이나 너무 자른 부분이 발견된다.

4) 방향 교체 : 상하를 거꾸로 보면 뜻밖에 사용에 좋거나 지금까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발견되는 일도 있다. 예를 들면 튜브나 폴리에틸렌 용기의 접착제 등은 거꾸로 해두면 사용할 때에 그 내용물을 꺼내기 쉽다. 또 비 오는 날에 자동차로 달

리면 비는 위나 옆에서만이 아니고 아래에서도 튀어 오른다. 좌우를 바꾸거나 순서를 바꾸는 것 도 이에 속한다.

5) 역할 교체 : 예를 들어 상사가 부하가 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점이나 이해의 기저가 발견된다.[17]

*2)*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사의 역할

미술표현에서 사고와 아이디어는 그대로 나타나며,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 표현양식에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표현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느냐'인 것이다. 그러므로 의미 없어 보이는 표현 하나하나가잠재적으로 중요한 창조형태이며 자기표현(self-expression)인 것이다.

이 때 에 아동의 성장 수준에 맞지 않는 것을 강요하거나 적용하게 되면 아동은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며 열등감이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신체 동작을 시각적 경험과 관련시켜 조절하지 못하는 난화기의 아동에게 대상을 명확한 형태로 묘사하도록 요구한다면, 대상과의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표현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의 표현방법인 난화에 대한 자신감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또한 대상의 중요성을 크기로서 표현하는 아동에게 시각적 비례에 근거하여 비판한다면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대상의 중요성을 결정하는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동은 처음에는 자신의 표현이 '부적당함'을 인식하게 될 것이고, 스스로 자신감을 상실하게 된다.[18] 그러므로 교사는 각 연령 과 발달단계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미술표현활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험의 표현에 자아동일화

---

17) 재미있는 조형놀이 김춘일 손영수 편역 미진사 1996 30p

18) 로웬펠드・브리테인, 서울교육대학교 미술연구회 역,『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미진사, 1993, p.47

(self-identification)하는 것이다. 즉 자아동일화는 창의적 표현의 매우 본질적 요소이며 이러한 요인들과 동일화하지 못하면 미술표현은 가장 근본적인 본질, 즉 창의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19] 그러므로 교사는 아동의 경험과 자아동일화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아동의 표현은 아동의 경험 에서 나온다. 미술표현은 알고 있는 것 뿐 만 아니라 보고 느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자신의 경험과 동일화하지 못하면 아동은창의적인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일어버리게 된다.

아동에게 그림을 그릴 때 아동이 자신의 경험에 직면하여 표현해 가도록 동기 부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는 미술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여러 방법으로 적절하게 적응하고 해결 할 뿐만 아니라 풍부하고 생동하는 경험을 주고 그 경험을 재구성할 수 있는 표현의 단서를 제공해 줌으로써 경험과 표현 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이로써 표현 활동의 과정과 작품 제작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즉 미술 활동이 아동들이 과정을 즐기는 단계에서 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나치게 결과만을 강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교사는 개개 아동의 개별성과 독특성을 인정하고 아동의 창의적 표현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미술 활동에 참여하여 강화를 주어 격려할 뿐만 아니라 교사 스스로가 창의적 표현활동으로 이끌어 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20]

교사의 창의적인 수업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들 수 있다.

1. 여러 종류의 재료를 구입한다.

---

19) 로웬펠드・브리테인, 서울교육대학교 미술연구회 역,『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미진사, 1993, p.49

20) 다음세대를 위한 미술활동집, 양경희, 다음세대,1998,53p

동네의 문구점, 화방, 과학사, 목공소, 또는 야외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나가서 찾아본다. 전문가용으로 준비하면 더욱 좋다. 많은 색의 크레파스·색연필, 싸인펜 ·물감 ·색종이 ·가위 스카치테이프, 종이테이프, 양면테이프 ·풀 ·스티커 등 아동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도구를 준비하고, 처음에는 될 수 있으면 새 것을 사주어 아동이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도록 한다.

2. 흥미 있는 대상을 갖도록 유도한다.

많은 재료를 가지고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하는 아동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그리기나 만들기를 시키기에 앞서 관심 있는 대상을 먼저 만들어주어야 한다. 로봇 ·공주 ·곤충 ·짐승 ·공룡 ·우주 등 책이나 비디오 박물관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아동이 의욕을 갖도록 한다. 책이나 사진을 이용하여 그것을 보고 그리는 방법도 숙달된 감각을 위해선 필수적이다. 먼저 보았던 사물의 특정을 충분히 느꼈는지를 파악한 후 그리게 하면 좋다. 책이나 사진 속의 대상을 고를 때는 사실적인 것이 좋고 직접 사물을 보고 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그리기나 만들기는 크고 대담하게 하도록 한다.

그림을 그릴 경우 주로 큰 도화지를 주고, 만들기를 할 경우는 많은 양을 준다. 크게 그리거나 만들도록 강요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선 도화지를 다 채우도록 하고 서서히 대상이 커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4. 아무리 우습고 볼품없는 작품이라도 칭찬을 많이 해 준다.

일찍 끝냈다고, 더 그려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주 훌륭한데, 이 부분은 더 자세히 그리면 굉장해지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좋다. 어설픈 간섭은 안 하는 것이 좋으며, 무엇을 그린 것이냐는 식의 질문보다는 어느 부분이 훌륭하다고 칭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여기까지 시도해 보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

동을 믿는 마음으로 서서히 해 나가자. 점점 늘어가는 표현량에 놀라게 될 것이다.

6.주위의 잘 어울릴 만한 친구를 몇 명 모은다.

처음에는 두 명부터 시작해서 네 명 정도면 가장 이상적이다. 천천히 늘려 가자 잘 맞는 친구가 중요한데 처음 협동 작업을 할 때에는 엄마가 함께 옆에서 아동들을 지켜보는 것이 좋다.

7.틀에 박힌 교육프로그램을 잠시 중단 한다.

엄마들로서는 어려운 일이겠지만 자유로운 사고를 위해서 중단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기존 수업에서 아동들이 흥미를 못 느낄 때, 비 오는 날 이면 귀신 얘기를 해 준다거나 산에 갔다가 솔방울을 잔뜩 주웠을 경우 강에서 새우를 잡아왔을 경우, 미술관에서 아동들이 봐야 하는 전시가 있을 경우 논자도 가끔씩 계획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순발력 있게 계획에 없는 수업을 진행한다.[21)]

---

21) 발자국 소리가 큰 아이가 창의적이다, 김수연, 시공사 1998, 140~143
23) 철학대사전, 학원사 1970 p946

Ⅲ. 창의적 표현을 위한 재료의 확대와 활용

*1.*아동미술표현에서 재료의 의미와 선택

재료란 무엇인가? 재료란 넓은 뜻으로는 창조과정의 결과에 있어서 예술적인 여러 형상을 산출해 낼 모든 전제로서의 소재를 말한다. 좁은 뜻으로는 표현의 제재를 가리키며 흔히 물감, 목재, 철재 등 예술의 물질적 원료를 말한다. 예술작품에서 재료가 지니는 효과는 그 작품을 창작하는 미적 이념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동인(motif), 형태, 표현 및 그 정서적 기능 등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특히 근대예술에서는 작품 존재의 바탕을 담당하면서 직접 감정 표출과 결합되는 것으로서 그 의의가 중요시 되고 있다.[22)]

현대 미술에서는 재료와 매체를 통한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독특한 작품세계를 창출하고 있다. 기존의 물감과 붓 등에만 의존하던 고정관념을 버리고 다양한 재료의 표현 방법으로 작가의 모든 것을 표출하고 있다.

현대미술에서 재료와 매체를 통한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독특한 작품세계를 창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초등하고 미술교육 에서도 재료와 매체는 표현 방법을 결정짓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아동 미술 활동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재료가 될 수 있다. 미술 표현의 즐거움과 창의성 및 미적 감각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많은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어떤 미술 재료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는 개인이 매체를 사용하는 개별적인 방법뿐 아니라 발달 단계에 맞는가 하는 적합성도 고려해야 한다. 재료는 창의적인 작품 표현에 필수요소로서 이것은 미술 재료와 제작 과정은 창의적인 작업으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저절로 배워지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어린이는 재료를 가지고 자신의 이미지와 생각과 느낌을 형태로 변화시키고 만들어 낸다. 또한 어린이에게 있어 표현 반응은 단순히 그가 바라보는 대상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림에 반영하는 경험과 그가 사용하는 충동을 주는 경험과 그가 사용하는 재료에 의존하며 표현은 표출하고자 하는 충동을 주는 경험의 구조적인 대상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 표출하고자 하는 충동적인 경험을 나타내는 구체적 형태를 그 대상에서만 이끌어낼 수 없다. 그것은 오히려 재료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23]

미술교육에 있어서 재료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은 재료를 통해 자신의 풍부한 상상력을 재구성하는 경험을 함

으로써 호기심과 욕구를 유발시키고 감수성을 강화시킨다.

둘째, 아동의 물질적 감상적 체험으로써의 의미를 갖는다.

셋째, 아동의 아이디어, 이미지를 적합한 시각적 구도로 변형시킨다.

넷째, 재료를 통하여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는 형태를 이루게 된다.

미술을 지도함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 중 하나는 아동의 성장과 자유로운 미술 표현을 고려하여 아동이 미술재료를 사용할 준비가 거의 다 되어있을 때, 적합한 재료를 판단하여 제시하는 데 있다. 아동은 재료를 선택함에 있어서 자신의 표현에 도움이 되는 재료인지, 해가 되는 재료인지를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아

23) 나순자, 현대 아동 미술에 있어 재료와 창의성과의 관계, 1999.

동의 미술활동에 쓰이는 재료의 선택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24]을 염두 해야 한다.

첫째, 재료는 아동의 발달수준에 맞아야 한다. 재료는 아동의 경험이나 발달에 맞아야 하며, 재료취급상 유아의 기술로서는 해결이 곤란한 것이라든가, 신체적 조건과 맞지 않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성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아동 스스로 작업을 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재료는 아동의 흥미와 요구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도 아동의 흥미를 끌지 못한다면 적합한 재료가 될 수 없다. 아동의 요구에 맞는 재료를 준비하고 제공함으로써 활동에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다.

셋째, 재료는 위생과 안전성을 갖추어야 한다. 아무리 적절한 재료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아동이 다룰 때 저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넷째, 재료는 경제적이고 손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생활주변의 재료는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동에게 친밀감을 준다는 점도 있지만, 늘 본 재료에서 이제까지 예기치 않았던 가능성을 찾아내는 즐거움을 갖게 하고 재료를 보는 법, 생각하는 법, 취급하는 법 등 기본적인 것을 체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재료는 아동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게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아동의 표현의욕을 자극하고 감동을 높여 주는 데는 풍부한 재료를 잦추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무턱대고 다량의 재료를 주는 것은 바라직하지 못하다. 유아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의 양이 적절하며, 그 이상의 양을 주게 되면 도리어 재료의 저항을 갖게 되고 혼란을 일으키게 되어 표현에 대한 이미지를 무너뜨리게 된다.

또한, 미술활동을 통하여 아동은 여러 가지 재료에 따른 성질들을 파악하게 되므

24) 허혜경,「유아를 위한 창작공예」, 학문사, 1996, p. 52~53

로 재료를 다양하게 제공해 주고, 재료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방법으로 재료의 성질과 효과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도 유용한 재료 선택의 한 방법일 수도 있다.[25]

아동의 미술활동에 있어서 재료의 선택 및 취급에 문제가 있으면 아동의 창작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재료 선택의 유의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사는 아동에게 재료를 제공하고, 아동이 효과적이고 흥미 있는 미술활동을 하기 위해 탐색 가능한 재료로써 다양 하게 경험하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

2. 미술재료의 확대

미술재료의 확대는 아동의 시각을 확대하고 사물에 대한 감성과 함께 관찰력을 키울 수 있다. 미술에 있어서 표현재료는 크게 평면재료와 입체재료로 구성되며, 평면재료는 화지나 폐휴지, 천 등의 몇 가지로 제한되어 있으나 입체재료는 무한하다 할 수 있다.

평면재료와 입체재료를 구분하여 분류·탐색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평면재료의 조사와 분류

구분	일반적인 재료	탐색 가능한 재료
화지류	캔트지, 색종이, 색도화지	목탄지, 모조지, 아트지, 색 한지, 화선지, 백상지, 마분지, 골판지, 하드보드지, 펠트지, 코르크판, ohp필름, 아세테이트지, 기름종이, 우드락 등
폐 휴지류	신문지, 잡지, 우유팩	책, 달력, 엽서, 각종 봉투, 껌종이, 각종 상자, 시험지 종이, 종이그릇, 쇼핑백, 금박지, 은박지, 창호지, 소포지, 장지, 벽지,

25) 김 정,「아동의 미술교육 연구」, 창지사, 1990, p.215

		셀로판지, 화장지, 쿠킹호일
기타재료	스티로폼 접시, 베니어합판, 김밥 말이, 각종 플라스틱류, 유리, 돗자리, 마대, 타일, 쟁반, 나무도시락, 투명 도시락, 아크릴판, 헝겊, 헌옷, 스타킹, 양말, 장갑, 장판지, 부직포 등	

<표 2> 입체재료의 조사와 분류

구분		일반적인 재료	탐색 가능한 재료
자연계	자연물	곡식류. 나뭇잎	솔방울, 솔잎, 도토리, 씨앗, 짚, 보릿짚, 새끼줄, 왕골, 칡넝쿨, 왕겨, 옥수수껍질, 수세미, 열매, 조롱박, 야채, 달걀껍질, 조개껍질, 나뭇가지, 포도 줄기, 칡넝쿨, 망초줄기, 명감줄기, 나무껍질, 밀가루, 소금, 깃털 등
	석재	돌	모래, 바둑알, 조약돌, 샌드페이퍼 등
	죽재	대나무	죽순껍질, 대나무뿌리 등
가공계	목재	나무토막, 성냥개비, 나무젓가락	톱밥, 우드페이퍼, 코르크, 베니어합판, 이쑤시개 등
	철재	철사, 구리판	철 조각, 철판, 압정, 머리핀, 핀, 클립, 스테이플러 심, 못, 깡통, 아연판, 알루미늄 판, 구리선, 동선, 전화선, 전기선, 병뚜껑, 철망 등
	섬유	털실, 헝겊	실, 노끈, 털, 인조 머리카락, 솜, 망사, 스타킹, 장갑, 양말, 인형, 부직포 등
	소성류	찰흙, 고무찰흙	석고, 파라핀, 지점토, 핸디코트, 목공용 본드 등

인공계	합성류	비누, 양초	석고봉, 기왓장, 벽돌, 지우개, 스폰지, 스티로폼, 합성봉, 폼보드, 폴리코드 등
	종이	색종이, 캔트지, 마분지	한지, 신문지, 장판지, 골판지, 휴지, 벽지 셀로판 지, 은종이, 금종이, 쿠킹호일, 각종 포장지, 아세테이트지, 우유곽, 각종 상자, 박스, 종이컵 등
	유리	각종 유리병	유리판, 컵, 유리 깔대기, 타일 등
	플라스틱류	요구르트 병, 빨대, 페트병	파이프 류, 헌장난감, 블록, 상자 류, 아이스크림 통, 단추, 주판알, 구슬, 필름, 필름 통, 각종 플라스틱 통, 쟁반, 일회용 그릇, 볼펜, 플라스틱폐품 류 등

미술표현재료에서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채색재료이다. 아동이 미술표현을 할 때, 통속적이고 이미 익숙한 채색재료 보다는 다양한 재료의 기회를 주어, 보다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표현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은 아동이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가능한 재료들을 조사하고, 각각의 특징들을 요약하였다.<표 3>[26)]

26) 김옥자, 폐품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내기 지도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p.69~70

<표 3> 채색재료와 특징

	재 료	특 징
일반적인 재료	크레파스	아동이 손쉽게 다룰 수 있다. 착색력이 강하고, 부스러기를 모아 녹여 나타낼 수 있으며, 텍스츄어의 재질로 이용한다. 색깔이 다양하고 아무 재료에나 쉽게 그려지며 쉽게 부러지고 세밀한 곳을 그리는 데는 적당치 않다.
	크레용, 색연필	선으로 그리기가 기본이 되고, 혼색, 문지르기를 할 수 있다. 색연필은 크레용보다 착색력은 떨어지나,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아동이 사용하기에 적당한 재료이다.
	수채화 물감	넓은 면을 힘들이지 않고 빨리 채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우연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농도에 따라 투명도의 변화도 줄 수 있다. 또한 흰색을 써서 불투명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두 가지 이상의 색을 혼합하여 다양한 색을 만들 수 있다.
	싸인펜	정밀한 묘사가 가능하며 다양한 색상과 더불어 번지는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수채화 물감과는 색다른 재질감을 준다. 넓은 면을 칠하기는 어렵고 빨리 색감이 소모되는 단점이 있다.
	파스텔	색감이 부드럽고 고와서 분위기가 독특한 환상적인 느낌을 주나, 착색력이 다소 약해 전시하거나 보관하기가 까다로운 단점이 있다.
	유성매직, 네임펜	싸인펜보다 굵고 강한 선을 표현할 수 있으며 크로키로 그리는데 적합하고 비닐이나 플라스틱 등에 그릴 때 잘 지워지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혼색이 어렵고 세밀하게 그리기는 어렵다.
	콘테, 목탄, 펜, 연필, 볼펜, 붓펜	콘테는 잘 지워지지 않고 강한 선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목탄은 부드러운 명암을 나타내거나 덧칠하여 표현할 수 있으며, 펜은 정밀묘사와 같은 세밀한 곳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며, 연필은 스케치 재료로 많이 쓰인다.
사용가능	동양화 물감	화선지나 먹물과 잘 어울러지는 성질이 있으며, 수채화 물감보다 화선지에 더 선명하게 표현된다.
	아크릴 물감	수채화 물감이 잘 칠해지지 않는 비닐이나 플라스틱, 아크릴 등에 재료에도 잘 칠해지며, 빨리 마른다.
	페인트	플라스틱이나 고무타이어 등 폐품의 전체적인 면을 칠할

한재료		때 적당하며, 물과 분리되는 성질을 이용할 수도 있다.
	먹물, 칼라 잉크	잘 번지고 색깔이 강렬하기 때문에 원색과도 잘 어울리며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
	꽃즙물	원래의 꽃즙물(봉숭아물 등)에 탈색되는 약품을 써서 무늬로 나타낼 수 있다.
	염색물감	무명이나 명주의 재질에 따라 직접염료나 산성염료를 사용하여 염색하여 나타낼 수 있다.
	치자물	밀가루나 광목 천, 옷, 흰 종이 등에 물들일 수 있다. 농도에 따라 진하거나 연하게 나타낼 수 있다.
	당근즙,시금치물, 식용색소	식품으로 먹을 수 있는 만들기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녹즙기로 갈아서 사용하면 편리하다.
	마블링 물감	마블링 효과를 낼 때 사용한다. 기름성분으로 물에 잘 뜬다. 빨리 마르지 않는 단점이 있다.
	기타	색분필, 메니큐어, 흙물, 핸디코트, 밀가루, 포스터물감, 매직 화이트, 파스넷, 풀 등

3. 표현재료의 가능성

창의적인 미술교육은 아동 스스로 느끼고 그리며 만지는 경험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표현할 재료들이 다양하게 제공되지 못한다면 아동의 내면의 감정들은 자발적으로 표현될 기회가 적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아동의 자발적인 표현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료와 지도자료, 용구 등을 풍부하게 준비해서 아동의 본능적 표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미술 표현에서 재료의 표현 가능성은 아동의 흥미와 욕구, 발달단계와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 그리고 선택된 재료는 아동의 표현에 장애가 아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사용될 때 의미 있는 가치를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의 미술표현에 재료

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위해 표현재료의 특성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하여 자신의 개성에 맞는 표현방법을 터득하게 하여 재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응용하는 능력을 발전시킨다. 늘 써오던 똑같은 재료도 다른 기법으로 사용하면 새로운 효과를 체험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미적 경험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선택된 재료에 의해 아동의 미술 활동의 흥미나 성취도는 크게 달라진다. 재료를 다루는 기법의 탐구는 그 가능성이 무한하기 때문에 기존의 기법에 따라가기 보다는 재료에 의해 다양하게 독창적인 기법을 찾아가야 한다. 재료의 표현 가능성과 표현 의도에 맞는 기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4> 표현재료의 가능성과 기법

재료	기법	표현가능성
종이	· 칼, 가위로 자르기	· 반듯하면서 예리한 느낌을 준다.
	· 손으로 찢기	·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느낌을 낸다.
	· 접기	· 면적이 줄어들어 새로운 모양이 생긴다.
	· 구기기	· 음영이 있는 우연의 효과를 얻는다.
	· 둥글게 말기	· 곡면이 나타나며 튼튼한 성질이 생긴다.(골판지)
	· 구부리기	· 다양한 곡면을 볼 수 있다
	· 겹쳐서 붙이기	· 가벼우면서도튼튼하며두꺼워진다.(종이그릇, 탈)
	· 뭉치기	· 면적을 줄이고 거친 질감을 나타낸다.
	· 자국내기	· 음영이 있는 부조의 효과를 나타낸다.
	· 비틀기, 꼬우기	(카드, 종이접시)
		· 더 강해지고 질긴 느낌을 얻는다.
	· 짜 맞추기	· 다른 성질끼리 조화의 효과를 얻는다.
	· 구멍 뚫기	· 다른 차원의 공간감을 느낀다.

	· 종이죽 만들기	· 모양과 성질이 달라지며 다양한 형태를 얻는다.(탈, 부조)
크레파스	· 손으로 문지르기 · 녹여 나타내기 · 가루로 나타내기 · 칠하기 · 찍기 · 다른 재료와 함께 표현하기	· 파스텔 효과처럼 쉽게 착색되고 부드러운 느낌을 얻는다. · 열을 가하면 녹고 금방 굳어 다양한 형태를 얻는다. · 가루를 뿌리고 다리미로 다려 새로운 모양이 생긴다. · 힘의 방향과 강약에 따른 효과를 경험한다. · 다른 재료의 형태를 이용해 표현할 수 있다. · 사포에 그려서 거친 질감을 나타낸다. · 크레파스와 초를 함께 녹인 뒤 굳혀 새로운 색깔모양의 초를 만든다.
물감	· 붓으로 칠하기 · 손으로 칠하기 · 떨어뜨리기 · 뿌리기 · 불기, 흘리기 · 번지기 · 거품 찍기 · 숨겨진 형태 찾기 · 핑거페인팅	· 손쉽고 부드럽게 채색을 할 수 있다. · 소박하고 자유로운 효과를 얻는다. · 광범위하게 분산되는 효과를 이용할 수 있다. · 힘의 방향과 강도에 따른 우연적인 효과를 얻는다. · 환상적인 체험으로 상상의 영역을 확대한다. · 물감과 물이 만나서 번지는 효과를 활용한다. · 신비로운 우연의 효과를 얻는다. · 양초의 파라핀 성질과 물의 분리 효과를 이용한다. · 손가락을 이용한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고 손으로 문질러 다시 그릴 수 있다.
점토 찰흙	· 제작 방법 및 성질에 따른 기법 · 다른 재료와 함께 표현하기	· 두들기기, 말기, 구부리기, 표기, 접기, 꼬기, 비틀기, 붙이기, 빚기, 자르기, 뜯기, 긁어내기, 깎아내기, 구멍 뚫기, 선 그어 넣기, 꽂기, 눌러 흔적내기 등의 뛰어난 입체감 효과를 이용해 다양한 형태를 나타낸다. · 지점토, 컬러믹스로 자유자재로 붙이고 떼어낼 수 있는 특성을 활용한다.

		· 찍히는 성질을 이용해 점토에 문양 찍어 부조를 표현 한다. · 뼈대를 이용한 환조를 표현한다. · 지점토를 물에 불려 스크래치를 할 수 있다.
목재	· 조각하기 · 조립하기 · 칠하기 · 쪼개기 · 그 외 기법	· 도구를 이용해 새길 수 있다. · 쌓거나 접착제를 붙여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 · 표면의 재질감을 다양하게 나타내고 광을 낼 수 있다. · 길게 쪼개거나 얇게 벗길 수가 있다. · 불에 그을리거나 착색할 수 있고 구멍을 뚫을 수 있다. · 탄력성을 이용할 수 있다.
헝겊실	· 염색하기 · 잘라 붙이기 · 접거나 포개기 · 물체에 매달기 · 실 튕기기	· 리듬감 있는 무늬를 민감하게 느낄 수 있다. · 탄력성 있고 유연한 특성이 있으며, 복잡한 것을 디자인할 수 있다. (인형, 장식품, 머리띠 등) · 물건을 포장하거나 넣을 수 있다.(포장, 가방) · 형태를 붙들거나 매달 수 있다.(모빌) · 실에 물감을 묻혀 튕겨서 우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유리필름	· 자르기 · 조립하기 · 그리기	· 유리칼로 자르고 갈 수 있다. · 면을 가지고 있고 접합시켜 조립할 수 있다. · 투명하여 빛을 통과시킬 수 있고 유성매직이나 아크릴 물감으로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철사	· 구부리기 · 자르기 · 감기 · 찍기, 긁기	· 탄력성이 있어 자유자재로 구부릴 수 있다. · 자유로운 길이와 형태로 만들 수 있다. · 두껍거나 얇게 표현할 수 있으며 운동감을 나타낼 수 있다. · 재료의 표면에 거칠고 다양한 재질감을 표현 한다
기타 재료 재활용품	· 폐품을 이용한 표현 · 잘라 붙이기 · 관찰하기	· 우유팩이나 페트병을 이용해 입체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 · 신문이나 잡지를 이용해 다양한 꼴라쥬를 제작할 수 있다. · 새겨서 찍거나 관찰해서 그릴 수 있다.

천연재료 아크릴	· 물들이기 · 통합적인 표현	· 자연물에서 얻을 수 있는 색을 채취하여 염색기법을 할 수 있다. · 과일이나 야채의 단면을 이용 찍어 표현할 수 있다. · 여러 가지 재활용품이나 재료들을 이용한 통합적인 표현이 가능하다

Ⅳ.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표현기법의 적용

1. 작품에 나타난 다양한 표현기법

표현기법은 재료를 다루는 방법으로 그리기 만 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재료의 효과적인 사용으로 새로운 표현세계를 넓혀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단순한 기법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자체가 작품의 주제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세기의 작가들은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새로운 재료와 기법을 연구해 오면서 파피에 꼴레, 포토 몽타쥬, 프로타쥬, 데칼코마니, 드롭 페인트 등의 다양한 기법을 가져왔다.

오늘날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기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미술의 다양한 표현기법

구분	사용된 기법	표현방법
우연의 효과를 이용한 기법	마블링	물과 기름의 반발 작용을 이용, 양동이에 물을 담근 후 성 잉크를 떨어뜨리고 저은 후, 종이를 얹어 무늬를 찍어낸다. 무늬가 대리석과 비슷하여 붙여진 이름
	데칼코마니	전사법이란 뜻으로 종이의 한쪽 면에 물감을 충분히 칠하고 접었다 펴면 대칭의 자연스런 형태가 찍혀 나옴
	드리핑	붓을 사용하지 않고 물감을 화면에 뿌리거나 떨어뜨리거나 흘려서 우연한 효과를 표현한다. 액션페인팅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
	불기	종이에 물감을 떨어뜨리고 입이나 빨대를 사용하여 불어 나타내는 기법
	번지기	물에 적신 종이에 물감을 칠하면 번지게 되는 효과로, 전통회화에서 많이 사용되어온 기법

	태우기	불로 태워 생기는 일그러진 외곽선과 형태, 거무스름한 색채 등을 이용하는 기법
	실로 무늬 만들기	물감을 묻힌 실을 종이 사이에 넣고 잡아당겨 무늬를 얻는 기법
바탕의 효과를 이용한 기법	프로타쥬	요철이 있는 물체 위에 종이를 대고 연필이나 크레용 등으로 문질러 찍어낸다. (탁본, 어탁)
	스크래치	밝은 색으로 바탕에 채색을 한 후 어두운 색을 그 위에 덧칠하여 긁으면 바탕색이 나타난다. 색의 두께에 따라 미묘한 효과를 느낄 수 있다.
	실물찍기	질감이 있는 대상에 직접 물감을 바르고 종이에 그대로 찍어내는 기법
	파피에꼴레	화면에 현실감을 주기 위해 색지나 신문지, 트럼프, 상표, 벽지 등을 붙여 새로운 효과를 표현
	콜라쥬	입체주의의 파피에꼴레 에서 발전한 것으로 신문, 잡지, 헝겊, 끈, 실, 실물 등을 화면에 붙여 표현하는 것으로 현대회화에서 많이 이용하여 화면의 질감효과를 높인다.
	모자이크	비슷한 크기의 색지나 돌, 색유리 등의 작은 조각들을 붙여 형상을 나타내는 기법으로 옛 메소포타미아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중세 비잔틴 벽화 장식에 많이 사용되었다.
	핑거페인팅	풀과 물감을 섞어 손가락으로 그리는 방법
	배틱	크레용 등으로 칠을 한 후 물감을 칠해서 배수성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방법
물체를 이용한 표현기법	스텐실	형태를 오려낸 종이를 놓고 그 속에 물감을 채워 넣는 공판화기법
	몽타쥬	동일한 화면 내에서 서로 다른 영상을 합성하여 배치하여 조립하는 기법. 다다이스트들이 처음 시도하였는데 콜라주의 자극을 받아서 시행된 것이다.
	포토그램	암실에서 인화지 위에 물체를 놓고 빛을 비추는 기법
현대회화의 새로운 기법	아상블라쥬	기성 제품을 수집하여 붙여 표현한 기법이다.
	옵아트	옵 아트 착시에 의해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는 기법
	비디오아트	비디오 아트 비디오를 모체로 하는 예술 표현 기법

시대적인 흐름을 고려해서 어린이들에게 이상과 같은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어린이 미술교육에 적용한다는 것은 어린이의 미적 체험을 돕고 감정, 느낌, 경험 등을 독창적으로 표현하도록 안내한다는 의미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고 미술교육의 목적을 단순히 표현기법만을 전수하는 데 둘 수는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린이의 성장 발달단계에 맞는 적절한 재료를 탐색하게 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어 어린이가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 창조적 행위로 도입될 때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교육적인 가치가 되는 것이다.

2. 효과적인 재료활용을 위한 지도방안

대부분의 아동들이 그림 그리는 재료로 쉽게 크레파스나 물감을 사용하며 평면적인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이 재료들은 색상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 아동에게 친숙한 재료라는 점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에게 다양한 재료를 접하게 함으로써 감각을 익히도록 유도하고 재료들을 새롭게 바꾸어 주어 늘 접하는 재료에 대한 지루함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아동의 다각적인 시도를 유도하고 창의성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이다.

미술에서의 표현능력은 다양한 매개체의 기술적 사용 능력을 터득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부분의 아동미술에서는 특정한 방법을 유일한 것으로 생각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접근을 막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다양한 기법과 재료의 제시를 통해 재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 들어가고 다양한 기법을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에 맞게 선택하여 나름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표현 능력의 향상은 많은 표현 경험을 통해서 육성되기보다는 보는 방법의 지도,

재료와 용구, 다양한 기법의 지도, 하나하나 짚어 가는 체계적인 지도와의 병행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육성되도록 해야 한다.[27]

미술의 표현방법은 한 가지 표현 기법이나 여러 가지 표현 기법을 함께 사용해서 작품을 완성할 수도 있고, 두 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작품을 완성 할 수 있다는데서 재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재료를 함께 사용하여 느낌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새로운 재료의 가능성을 발견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처럼 아동들은 재료를 통해 그들의 풍부한 상상력을 재구성하는 경험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 호기심과 욕구를 유발시키고 감수성을 강화시키며, 표현을 위해 재료의 물질적, 감상적 체험으로써 의미를 갖는다. 또한 아동들의 아이디어, 이미지를 적합한 시각적 구조로 변형시키며, 재료를 통하여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는 형태를 이루게 된다.[28]

표현기법과 재료의 사용은 지도교사의 재량에 맡겨질 수밖에 없으므로 아동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다양한 표현재료 및 표현 방법을 탐색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는 방법모색이 필요하며, 그 표현 능력이 학습에 의해 발달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학습계획이 제공되고 지도되어져야 한다.[29] 또한 재료는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보다는 어떻게 재료를 사용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율적으로 나타낼 것이냐 하는 것에 비중을 두어 지도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재료와 표현기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7) 이규선,『미술교육학 개론』, 서울:교육과학사, 1994, p. 65.
28) 나순자,「현대아동미술에 있어 재료와 창의성과의 관계」,『사향미술교육학회』 제7집 (2002), p.77 재인용.
29) 나순자, 앞의 책, pp. 80-81.

첫째, 재료를 선택은 어린이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표현에 타당한 재료여야 하며, 재료활용에 대한 사전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

둘째, 재료의 선택은 다양한 사고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표현기법을 기대하기 위해선 제재의 제시, 재료에 대한 안내, 참고작품 등을 하루나 일주일 전에 시청각자료 및 각종 실제작품을 제시하여 충분한 동기유발을 시켜주도록 한다. 발상과 구상이 짧으면 어린이들은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예전에 보이던 수준의 표현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넷째, 주제와 방법에 대한 접근 방법이 참신해야 한다. 한 가지의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만을 고집한다면 획일적인 수업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주제와 표현방법을 다양하게 접근하여 활용하여 어린이 스스로가 개성적이며 창의적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참고작품의 선택은 예전의 익숙해진 몇몇의 재료와 기법에 의존하지 말고 현대미술에서 새롭게 연구되고 있는 재료와 기법을 함께 제시하여 이해와 감상활동을 결부시켜 지도하도록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창의적인 표현을 이끌어 대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료 및 표현 기법을 연구하여 이를 실제적으로 표현에 적용하여 보다 나은 창작활동이 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미술 교육에서의 창의성 개발을 위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 재료의 사용법을 이용한 다양한 표현기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제시할 수 있는 지도방안과 실제 아동미술 수업에서 적용 가능한 몇 가지 표현기법에 대해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3. 다양한 표현재료와 기법활용의 실제

*1)*일반적인 재료와 기법을 응용한 표현기법

일반적인 화지 안에 흔히 쓰이는 크레파스, 물감, 색종이 등의 재료를 표현기법 을 조금씩 변형시켜보고 새로운 재료로 응용하여 재미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여 창의적인 표현을 유도 할 수 있다.

크레파스 문지르기

크레파스 재료에서 표현 할 수 있는 기법으로, 같은 모양을 여러 개 오려내어 색상을 바꾸어서 칠하고, 문지르기를 하여 재미있는 효과를 나타내 본다.

표현재료: 크레파스, 필름지나 코팅이 된 종이, 칼, 가위, 화장지등

표현방법: 문지르기 기법에 적합한 모양을 도안화 하여 오려낸다.

모양 둘레에 크레파스를 진하게 칠하여 문질러 낸다.

손가락을 자주 닦아주면서 문지른다.

적용결과: 파스텔 효과와 비슷한 부드러운 느낌으로 크레파스로 칠하는 것 과 문지르는 기법이 다른데서 오는 재미를 느낀다.

중복적인 표현을 재미있게 배열하여 구성능력을 갖게 된다.

색종이 도형꾸미기

주어진 소재에 크기와 형태가 동일한 도형을 붙여 완성하는 방법이다.

표현재료: 색종이, 풀. 가위

표현방법: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물을 이미지화 한다.

원, 삼각형, 사각형 등, 도형의 모양에 적합한 소재를 가볍게 스케치하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색 도형을 붙여 아름답게 꾸민다.

적용결과: 색종이 모양과 색의 구성능력을 터득할 수 있다.

형과 색채에 대한 감각을 알게 한다.

규칙적인 모양과 색깔로 마치 블록을 쌓는듯한 느낌으로 작업에 임하여 놀이를 한다는 기분으로 자연스럽고 재밌게 표현 할 수 있다.

우드락 판화

판화기법에서 주로 하는 나무판화 나 고무판화는 조각칼 등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아동에게는 다 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반면 스티로폴 재료는 매우 다루기 쉬운 재료다. 연필이나 볼펜 등으로 누르거나 흠집은 내어서 표현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판화에 접근할 수 있다.

표현재료: 우드락, 볼펜이나 연필 등 흠집을 낼 수 있는 도구

화선지, 켄트지, 잉크, 포스터물감, 로울러 등.

표현방법: 볼펜으로 제재 대상물들을 가볍게 그린다.

파낼 부분을 설정한다.

형태를 도구로 눌러서 처리한다.

포스터물감이나 잉크를 판형에 칠하여 여러 번 찍어낸다.

적용결과: 재료의 성질에 따른 표현제작이 다른 것을 느낄 수 있다.

판화의 특징과 제작과정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여러 가지 종이를 선택하여 재미있게 찍어내는 방법을 알게 한다.

면봉찍기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면봉에 물감을 묻혀 규칙적으로 찍어서 표현하는 그림이다.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물을 가볍게 스케치 하고 색의 조화를 생각하여 재미있게 제작한다.

표현재료: 켄트지, 수채화물감, 접시, 면봉, 붓 등

표현방법: 연필로 밑그림을 그리고 면봉의 크기와 채색의 계획을 세운다.

밝은 색 에서 점차적으로 어두운색으로 찍어간다.

물감을 적당히 물과 섞어 면봉이 풀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면봉으로 찍은 둥근 모양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다듬어 찍어 간다.

적용결과: 연필이나 붓이 아닌 다른 도구로 채색이 가능하다는 것을 새롭게 접하

고 반복되는 무니가 겹쳐지면서 완성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인내심이 요구되는 작품 활동이기 때문에 연령이 낮은 어린이들은 휴식을 주어 긴장감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좋다.

융단그리기

네 명이 힘을 합쳐 화려한 컬러 융단을 만들어 본다.

그림물감을 물에 풀어서 붓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즐거움, 그 중에서 색의 아름다운과 색과 색이 자아내는 세계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맛볼 수 있다.

표현재료: 그림물감. 굵은 붓. 전지

표현방법: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림물감을 물에 푸는 것도 아동들과 함께 즐기게 한다.

붓으로 휘저어서 푸는 동안에 즐거운 기분이 되게 된다.

공동 작업이기 때문에 색을 혼탁하게 하지 않게 마르기 전에 색끼리 겹쳐져 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붓은 반드시 그 색 전용 접시에 돌려놓도록 하는 것을 서로 약속한다.

적용결과: 네 명이 다양한 색상을 가진 융단을 함께 만들면서 한명이 흰 종이를 마주하고 그리는 것에 저항감이 있는 아동도 친구들의 활동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붓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된다.

자신이 생각하는 그대로 그리면서 서로에게 미묘한 영향을 받으면서 예상치 못한 화면이 나타나게 된다. 완성된 융단을 벽에 장식해보고 즐거움을 느낀다.

새로운 물감 만들기

이제까지 써오던 물감에 목공용 본드, 풀, 지점토 등을 혼합하여 전혀 새로운 느낌의 그림물감을 만들 수 있다. 손가락으로 그릴수도 있고 숟가락으로 떨어뜨리거나 비닐주머니에 넣어 흘리기 등 색다른 기법으로 표현의 즐거움을 느끼며 다양한 기법에서 얻을 수 있는 우연의 효과는 아동의 창의적 표현을 이끌어 낸다.

표현재료: 물감, 목공용 본드, 밀가루 풀, 지점토, 물 접시 숟가락, 비닐팩

표현방법: 비닐팩에 목공용 본드와 물감을 넣어 섞이도록 하고 비닐팩 모서리 끝을 가위로 잘라 도화지 위에 생각나는 대로 방울방울 흘려본다.

물과 밀가루를 적당히 섞어 끓여주면 밀가루 풀이 되는데 여기에 물감을 섞어주면 부드러운 느낌의 채색 재료가 만들어 진다.

지점토를 물에 녹여 걸쭉하게 풀어준 뒤 물감을 섞어 준비한다.

목공용 본드와 밀가루 풀 물감은 투명하고 물감 고유의 선명한 색깔이 만들어 지고 지점토 물감은 파스텔 톤의 부드러운 색깔이 만들어 진다.

새로운 물감을 만들어 낸 것이기 때문에 끈적한 느낌을 손으로 직접

느껴 보면서 표현해 본다.

적용결과: 비닐팩에서 크림처럼 흘러나오는 재미가 조형 의욕을 높인다.

재료를 손으로 직접 만짐으로써 감촉의 즐거움을 느끼고 페인팅 감각을 활동 속에서 충분히 살리고 상상을 넓힐 수 있다.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다른 성질의 물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동이 표현하고 싶은 것에 맞는 원하는 재료를 스스로 선택 할 수 있게 한다.

수수깡, 쌀 콜라주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이미지에 따라 다양하게 칠하거나 붙여서 제작되는 작품이다. 이러한 작품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하여 재미있게 제작할 수 있다.

표현재료: 두꺼운 종이, 접착제, 곡식류, 수수깡, 물감, 접시, 칼

표현방법: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에 맞는 재료를 선택하게 한다.

수수깡은 여러 가지 색을 동그랗게나 어슷하게 칼로 잘라 준비한다.

쌀은 물감에 각각 섞어 염색이 되게 준비한다.

형태를 가볍게 스케치 한 후 붙여 나간다.

재료의 특성을 생각하여 붙이는 방법을 선택한다. (접착제)

적용결과: 재료의 선택과 준비단계에서부터 미리 제시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스스로 선택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낀다.

재료의 성질을 알고 각기 다른 독특한 질감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재료 아름다움을 경험한다.

종이 찢어 붙이기

신문지, 색종이, 한지 등을 손으로 자연스럽게 찢어 붙이는 방법으로 종이의 성질에 따라 찢기가 다르고 붙이는 방향에 따라 재미있게 표현 된다.

표현 재료: 판지, 골판지, 신문지, 잡지, 색종이, 한지 등, 풀

표현 방법: 표현 내용을 스케치 한다.

풀을 칠하고 원하는 종이를 찢어 붙여 나간다.

필요에 따라 주변에 그림을 넣거나 다른 기법을 접목시켜 본다.

적용결과: 형태와 색채의 배치능력과 결합을 경험하게 된다.

가위나 칼 등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자유롭게 찢어 형체의 선이 종이의 성질에 따라 여러 가지로 변화되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활동으로 아동의 구성 능력을 키우고 재료에 대한 지배 능력을 키울 수 있다.

*2)*화지 대용의 재료를 응용한 표현기법

미술수업에는 정해진 화지와 물감이나 크레파스의 채색재료가 꼭 필요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종이류의 화지가 아닌 다른 바탕위에 다양한 표현기법으로 작업을 하면서 새로운 경험으로 창작의욕을 불러일으킨다.

필름 스크래치

일반적인 크레파스로 하는 스크래치를 응용한 기법으로 더 쉬우면서도 선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표현재료: 도화지, OHP필름 지, 색종이, 먹물, 붓,
면봉이나 이쑤시개 등 긁어낼 수 있는 도구.

표현방법: OHP필름에 먹물을 펴 바른 후 말려 스크래치 판을 제작한다.
마른 검정 스크래치 판에 면봉을 이용하여 닦아내거나 세밀한 부분은 이쑤시개로 긁어내 표현한다.
도구가 지나간 자리가 투명해진 스크래치 판 뒤에 도화지에 여러 가지 색깔의 색종이를 찢어 붙인 것을 붙여 색이 나타나게 한다.

적용결과: 특별한 기술 없이도 훌륭하게 할 수 있는 그림으로써 스크래치 후 색지를 댐으로써 회화적인 느낌과 디자인 적인 느낌을 다 가질 수 있는 기법이다. 기존의 크레파스 기법에 비해 힘들이지 않고 선명한 효과를 얻

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적극적인 표현활동을 하게 한다.

사포를 이용한 그림

사포그림은 질감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모래 그림과 동일점이 내포되어 있으나 작업이 손쉽고 재료를 구입하기 용이하다. 거친 부분에 크레파스, 수채화 물감으로 제작 할 수 있다. 크레파스 제작은 두들기기 기법으로 작업할 수 있으며 수채화 물감으로의 제작은 가능하나 색상이 밝지 않다.

표현재료: 사포, 크레파스, 아크릴 물감, 붓, 휴지

표현방법: 연필로 가볍게 제재를 그린다.

크레파스는 힘주지 말고 칠하거나 가볍게 두들기기를 한다.

수정 할 때는 아크릴 물감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적용결과: 종이에 그린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사포의 특성을 이해하며 새로운 재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게 한다.

사포의 거친 질감이지만 오히려 종이에 표현할 때 보다 크레파스가 부드럽게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치 칠판에 분필로 낙서하는 듯 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호일그림

쿠킹호일의 성질을 알고 작품제작을 계획하여야 한다. 빛이 나고 구겨지는 쿠킹호일의 성질을 이용하면 화려한 작품이 제작된다.

표현재료: 쿠킹호일, 비닐, 판지, 유성매직, 먹물과 세재, 접시, 붓, 스카치 테잎

표현방법: 유성매직(검정)이나 세재를 섞은 먹물로 스케치 한다.

마른 후 비닐이나 필름지에 유성매직으로 가볍게 칠한다.

쿠킹호일을 적당하게 구겨 서 펼쳐 판지위에 싼다.

쿠킹호일위에 완성된 작품을 싼다.

적용결과: 비닐위에 유성매직으로 표현함으로써 셀로판지처럼 비치는 그림이 완성되는데 그 뒤에 쿠킹호일의 구겨지고 반짝이는 성질을 이용하여 비치게 해 줌으로써 화려하고 재미있는 작품을 이끌어낼 수 있다.

석고, 핸디코트 위에 수채화 표현하기

종이가 아닌 다른 재료에 수채화 표현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사실적인 표현 뿐 아니라 추상적인 표현도 나타내 보면서 수채화 기법에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 본다.

표현재료: 석고, 핸디코트, 목공용 본드, 모래, 우드락 폼, 수채화 용구, 고무그릇, 나이프 등

표현방법: 자신이 표현 할 밑바탕 재료를 선택한다.

고무그릇에 석고와 물을 적당량 섞어 일정한 현태 없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만큼 나이프로 바른다.

석고가 굳으면 그 위에 수채화 물감으로 자유롭게 표현한다.

핸디코트와 목공용 본드를 혼합하여 우드락 폼 위에 바른다. (종이는 마른 후 형이 뒤틀리기 쉽다.)

경우에 따라 모래를 섞어 줌으로써 거친 질감을 얻을 수 있다.

투명한 수채화 느낌을 낼 수도 있고 강하고 불투명한 표현도 가능하다.

적용결과: 항상 해오던 정해진 틀이 아닌 곳에 표현 할 수 있고 화지가 아니기 때문에 밑바탕 작업부터 스스로 만들어 봄으로써 창의적인 표현 욕구를 더욱 유발 시킬 수 있다.

석고라는 재료의 특성을 경험해 보고 강한 질감으로 부조의 느낌을 얻을 수 있다.

생소한 재료의 사용으로 주변재료의 다양성을 일깨워 준다.

추상적인 표현으로 아동안의 잠재되어있는 표현 욕구를 이끌어 낸다.

빨대 모자이크

부조의 느낌과 콜라주 기법을 활용하여 응용함으로써 새로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표현재료: 골판지, 핸디코트, 지점토, 색 빨대, 가위

표현방법: 여러 가지 색 빨대를 잘게 잘라 준비한다.

골판지 위에 핸디코트를 두껍게 펴 바르거나 지점토를 평평하게 펼쳐 놓는다. (모양은 자신이 원하는 데로 자유롭게 만든다)

잘라놓은 색 빨대를 꼽으면서 작품을 완성한다.

골판지에 구멍을 뚫어 벽에 걸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적용결과: 종이에 접착제를 이용해 붙이는 기법과 다른 새로운 기법에 호기심을 보이며 케이크에 초를 꼽는 것 등 자신의 경험과도 연결시키면서 적극적인 수업이 이루어진다.

반복적인 모양으로 대부분 디자인적인 표현으로 나타났으며 하나하나 꼽으면서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3)*우연의 효과를 응용한 표현기법

다양한 채색재료를 사용하여 떨어뜨리기, 번지기, 불기 외에도 다양한 표현 기법을 예상치 못한 효과를 얻어냄으로써 아동에게 잘 그려야 한다는 부담감을 없앰으로써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하고, 호기심과 기대감을 유발하여 자연스러운 표현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표현기법이 갖는 우연성을 표현의 필요성, 즉 의도적인 표현기법으로 적용하면서 창의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수성사인펜 번지기

수성사인펜이 물에 번지는 성질을 응용하여 표현해봄으로써 우연의 효과를 얻어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다.

표현재료: 와트만지, 화선지, 수성 사인펜 붓, 분무기 등

표현방법: 와트만지에 물을 흡수시켜 물기가 마르기전에 수성사인펜으로 그려본다.

화선지에 수성사인펜으로 그린 후 붓으로 물을 바르거나 분무기 물을 뿌려 사인펜이 번지면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본다.

활동내용: 종이 재질에 따라 번지는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한다.

표현방법을 자유롭게 정해서 시도 해 본다.

물을 흡수시키고 번지기를 했을 때 와 마른종이에 번지기를 했을 때 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번지기와 접목시켜 새로운 창의적 표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처음 의도했던 형태가 아닌 전혀 다른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그리기에 서툰 아이들이 새로운 흥미를 더 할 수 있다.

비누거품으로 재미있게 그리기

색깔 비눗물로 거품을 일으키거나 비눗방울을 만들어 터뜨려 나타냄으로써 표현의 즐거움을 느낀다.

표현재료: 도화지, 물감 비눗물, 다양한 모양의 컵, 빨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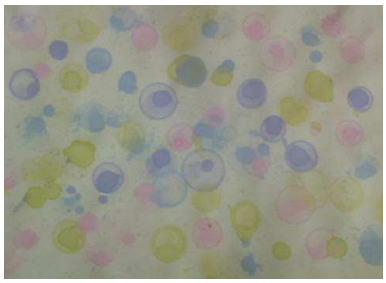
표현방법: 비눗물에 물감을 알맞은 농도로 섞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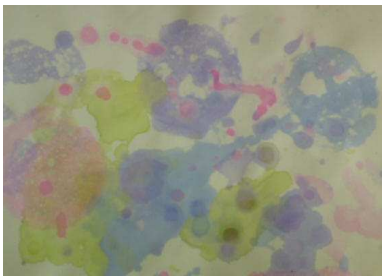
빨대에 물감을 조금 묻혀 도화지에 대고 비눗방울을 불어본다.

컵에서 보글보글 거품을 일으켜 흘러내리게 할 수 있고 거품을 찍어 무늬를 만들어본다.

적용결과: 거품을 만드는 방법, 모양 만들기, 색깔 고르기 등 각자 생각대로 자유롭게 활동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비눗방울 놀이를 기법에 적용시켜 흥미를 높일 수 있다.





구슬그림

물감이 발려진 구슬을 굴리면서 재미있는 우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표현재료: 도화지 다양한 크기의 유리구슬 물감, 그릇이나 컵, 쟁반

표현방법: 그릇이나 컵에 물감을 물에 진하게 풀어놓고 구슬을 넣어 물감이 구슬 표면에 골고루 발라지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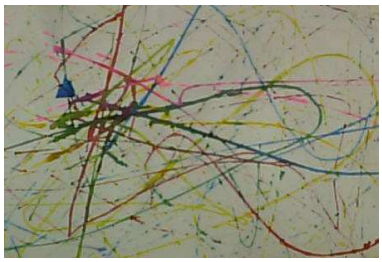
종이에 구슬을 굴리면 지나간 자리에 자국을 남기며 그려지게 된다.

쟁반위에 화지를 올리고 구슬을 올려 쟁반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구슬의 속도감이 주는 또 다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완성된 작품을 찢어 붙이기 기법을 응용하여 재배치 해봄으로써 또 다른 표현을 해 본다.

적용결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구슬이라는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호기심을 자아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직접 손대지 않고 표현하는데서 오는 우연성과 구슬이 지나간 자리에 그려지는 곡선의 재미는 아동의 흥미를 충분히 이끌어낸다.

찢어 붙이기 기법을 응용해 봄으로써 또 다른 구성능력을 길러주며 여러 가지 기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게 한다.



마블링 오려붙이기

물과 기름의 반발작용을 이용, 물이 흔들리는 상태에 따라 여러 가지 색의 기름이 분화하고 확산되어 가며, 그때 우연히 아름다운 무의가 나타나는 상태에서 어느 한 순간 종이위에 흡착시키는 방법이다.

표현재료: 마블링 물감, 캔트지, 젓가락, 큰 그릇 가위, 풀

표현방법: 그릇에 물을 가득 넣고 무늬를 흡수시킬 캔트지를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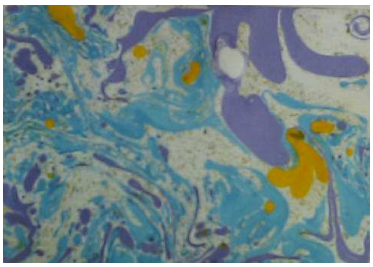
맘에 드는 무늬가 나왔을 때 순간적으로 종이에 흡수시킨다.

반복하여 흡수시키면 겹침이 나타난다.

완성된 마블링 작품을 다른 작품의 배경에 어울리게 응용해 볼 수 있고 모양을 오려 붙임으로써 전혀 다른 작품으로 나타 낼 수 있다.

적용결과: 손으로 그릴 수 없는 우연성으로 나타난 무늬의 아름다움을 느낌으로써 만족감을 느끼고 작품을 함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게 된다.

완성된 작품을 다른 작품에 응용해 봄으로써 다양한 표현재료와 기법에서 오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물감불기 기법으로 표현하기

물감을 떨어뜨려 놓은 다음 표현하고자 하는 사물을 연상하여 표현하려는 방향과 위치를 생각하면서 불고 여러 가지 용구를 사용한다. 표현하고자하는 형태에 따라 입으로 불거나 빨대 에어브러시 등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재미있는 표현을 할 수 있다.

표현재료: 캔트지, 수채화 물감, 빨대, 붓 (스포이드), 사인펜 등

표현방법: 여러 가지 색을 접시에 섞어놓고 붓이다 실험용 스포이드를 이용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위치를 선정하여 물감을 떨어뜨린다.

모양을 생각하여 서서히 불어 형태를 만든다.

먼저 꾸며놓은 형태가 완전히 마른 후 서로 겹치기 기법을 접목시킨다.

표현하고자 하는 형제를 연상하여 사인펜으로 그리거나 손가락에 물감을 ane혀 찍기 기법을 응용해 보면서 재미있는 화면을 구성해 본다.

적용결과: 우연하게 표현되는 상태를 보고 재미있게 꾸미는 능력을 기른다.

다른 기법들을 적용해 봄으로써 재료가 가진 특성을 살려 조형 활동의 계기를 만들어 의욕을 높여 나간다.

우연으로 만들어진 화면에서 연상을 해나가고 어울리는 다른 기법을 응용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동안 상상력과 창의적 표현능력을 길러준다.

Ⅵ. 결 론

미술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시각적 표현을 통해 창조, 발전시키는 예술의 한 영역으로 최근에는 창의적이고 감성이 풍부한 인간의 육성이 강조되면서 미술이 모든 교육의 기초이어야 한다고 할 만큼 미술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아동의 생각은 매우 자유롭고 활동적이며 다양한 대상의 호기심을 가진다.

아동기에 길러진 창의성은 어떤 문제라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잠재능력이 되고 이 시기의 미술교육은 창의성 발달에 가장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아동미술 교육은 창의적인 활동을 표방하면서도 아직까지는 정해진 화면 안에 잘 그리는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있어, 그로인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표현활동에 필요한 동기유발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창의성 계발의 결여는 적절한 표현지도를 위한 다양한 재료와 표현기법의 활용 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각 영역별 재료표현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적절한 재료 및 표현기법의 확대와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생활주변의 재료의 의미와 역할을 알아보고 새로운 재료의 성격을 파악해서 재료의 표현가능성과 교육적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둘째, 재료의 미술 교육적 의미를 인식하여 재료의 특성을 살린 표현활동을 다양한 기법과 연결시켜 보았다.

셋째, 한 화면에 하나의 기법에 그치지 않고 두 가지 이상의 기법을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아동의 표현가능성을 확장시켜 여러 가지 기법이 적절이 혼합된 작품으로 발전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능위주의 기법습득에서 벗어나 표현의 응용력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재료활용에 중점을 두고 아동미술 수업에 적용해 봄으로써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미술활동에 있어 재료의 확대는, 아동에게 어떠한 재료든지 활용하여 미술 표현의 재료가 됨을 인식시킴으로써 주위환경에 대한 관찰력을 높이고, 서로 다른 종류의 재료를 한 화면에 구성하여 붙이고 그림으로써 화면 구성력도 함께 향상시키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료 활용과 기법을 통해 예상치 못한 효과를 얻게 됨으로써 잘 그리고 못 그리고의 차이에서 오는 부담감을 없애고 아동스스로 그림에 대한 완성도가 높아지게 되며 미술에 대한 자심감과 흥미를 향상 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그린다'는 활동보다 새로운 느낌을 줌으로써 아동의 자발적인 호기심을 느끼게 하며 적극적인 표현을 이끌어 내었고 그로인해 작품의 내용이 훨씬 풍부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표현이 이루어 졌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술교육은 단순히 그리고 채색하는 기능이나 작품 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술을 통해 자신만의 생각과 느낌,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 과정에서 창의성을 개발하여 조화로운 인간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료와 표현방법을 활용하여 아동의 경험과 상상을 마음껏 표현하도록 하기위한 교사의 역할이 중요시 된다. 미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습득과 다양한 재료와 표현기법을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게 안내하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융통성 있는 교수 방법으로 어린이들의 표현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아동미술교육의 목표를 아동의 잠재되어있는 창의성을 계발시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아동의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미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료로 자극을 주어서 창작의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는 미술의 이론이나 기능위주보다 아동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미술표현 재료와 방법을 끊임없이 제공해야 하며, 앞으로 더욱 새로운 표현재료와 기법들이 계속적으로 연구되어 이를 통한 창의적 교육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발히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김수연, 『발자국 소리가 큰 아이가 창의적이다』, 시공사 1998.

김 정, 『유아의 묘화 분석』, 서울:백암출판사, 1984.

김 정, 『아동의 미술교육 연구』 창지사, 1990.

김춘일, 손영수, 편역 『재미있는 조형놀이』, 미진사 1996.

김춘일. 『창의성교육 그 이론과 실제』, 서울 : 교육과학사, 1999.

김춘일, 차동재, 『아동미술의 지도와 이해』, 미진사, 2000.

나순자, 『현대 아동 미술에 있어 재료와 창의성과의 관계』, 1999.

로웬펠드・브리테인, 서울교육대학교 미술연구회 역,『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미진사, 1993.

이규선,『미술교육학 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1994.

양경희, 『다음세대를 위한 미술활동집』, 다음세대,1998.

윤종건, 『창의성 교육 그 이론과 실제』, 서울:교육과학사, 1999.

정순목, 『예술교육론』, 서울:교육과학사, 1993.

최재영, 『아동미술 활동의 지도와 이해』, 창지사, 2001.

허혜경, 『유아를 위한 창작공예』, 학문사, 1996.

O. W. Gotshalk, Art and socil, N.Y: Dover Publishing Mc-Grow-Hill Book Co. 1962.

P. D. Jenkins, Art for the Fun of It a Guide for Teaching Young Children, New Zealand: Prentice-Hall, Inc, 1980.

김옥자,「폐품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내기 지도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1996.

류원호, 「창의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회화 표현기법에 대한 연구」, 목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박영숙, 「주변재료를 이용한 미술표현력 신장에 관한 연구」, 춘천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박유경, 「아동미술의 다양한 재료활용과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이애숙, 「미술재료의 확대와 활용방법이 아동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이혜진, 「초등학교 그리기 지도에서 다양한 재료 활용을 통한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정미경, 「창의적인 아동미술 표현을 위한 조형놀이 프로그램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차민정, 「미술재료의 확대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다자인대학원, 2004.

추지영, 「아동의 창의성 향상을 위한 미술교육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최향란, 「아동미술을 통한 다양한 표현기법 연구」, 성신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미술교육전공	학 번	20058098	과 정	석 사
성 명	한글: 최금정 한문 : 崔 琴 靜 영문 : Choy Keum-Jeong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라인아파트 203동 102호				
연락처	E-MAIL : soap21@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아동미술교육에 있어서 창의적인 표현을 위한 재료활용에 관한 연구 영문 : Study on using material for creative expressions in art education for children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 조건부 동의( ) 반대( )

2008년 월 일

저작자: 최 금 정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